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산업관광육성조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산업관광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급상승 하고 있다.

순창군 학생산업 체험 '인기'

6월말까지 유료관광객 1,000여명 중 · 고등학생 65% 이상 차지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산업관광육성조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산업관광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급상승 하고 있다.

군은 올해 2월 조례 제정 후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 결과 6월 말까지 유료관광객이 1,000여명에 이르며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방문객이 65%를 넘어 청소년들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운영하는 산업관광 프로그램이란 군의 장류산업시설을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전문매니저나 기능인들로 구성된 산업해설사와 함께 견학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해서 지난 8일 입실치즈고등학교 학생 45명도 순창장류산업 관광에 나섰다. 일일 학생들은 장류연구소를

방문해 장류의 역사, 문화 등 산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발효식품에 있는 미생물을 분리해 어떻게 이를 다시 제품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도 지켜봤다.

또한 해삼(HACCP) 인증을 받은 메주공장과 절임류센터에서는 메주의 생산과정과 삼무의 제조과정도 지켜보고 품질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볼 수 있어 장류산업 전반에 대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최대 토굴형 저장고이자 연평균 15°C를 유지하고 있는 발효소스 토굴에서 50여개 국의 다양한 소스와 식문화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돼 아이들에게 기쁨을 줬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군의 대표 산업인 발효산업에 본격적으로 관광을 융합해 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시스템에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앞으로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시설과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군의 대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군은 7월 중에는 부산지역시민단체, 김제시 마을주민 등이 참여하는 1박 2일 산업관광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류산업에 관광을 덧입히는 산업관광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 장류산업 관광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장류사업소 전화 063-650-5428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은 11일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종합병원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회 의장, 이호근 도의원, 군의원, 고창종합병원 조병채 병원장과 조남열 이사장, 지역내 사회단체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종합병원 신관 개원식' 및 '분만산부인과 현판식'을 갖고 진료 및 운영을 시작했다.

고창종합병원 신관 분만산부인과 개설

초음파진단기 외 26종 최첨단 시설 갖춰

고창군(군수 박우정)에 분만산부인과가 개설해 아이 낳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11일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종합병원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회 의장, 이호근 도의원, 군의원, 고창종합병원 조병채 병원장과 조남열 이사장, 지역내 사회단체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종합병원 신관 개원식' 및 '분만산부인과 현판식'을 갖고 진료 및 운영을 시작했다.

고창군에는 그동안 분만시설이 없어 산모들이 진찰과 분만을 위해서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런 산모들의 원진진료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분만시설 확보에 노력해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1억원을 포함 총 16억원을 들여 고창종합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개설했다.

고창군의 '분만 산부인과'는 초음파

진단기 외 26종의 최첨단시설을 겸비하고 외래 및 분만진료까지 실시하게 되며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의 예산을 고창병원에 지원하여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고창군은 도내 분만 취약지 중 첫 번째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게 됐으며 지역 내 임신부와 여성들의 불편함을 덜고 진료와 검진을 비롯해 야간 분만과 갑작스런 산통에 따른 응급대처가 신속하게 이뤄져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입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 4만주 재배

입실군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입실N치즈축제'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축제전시용 국화 4만주를 지역농업실증포 내에서 재배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국화 삼목 및 묘목 구입을 시작으로 지난 달 정식을 완료했으며, 아름다운 분화국 생산을 위해 자동화 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주는 물론 양분 관리와 병해충방제를 통해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 '입실N치즈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9월 중순경에는 분화국을 '입실치즈테마파크'에 전시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주요 거리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 다시 찾고 싶은 입실군

건설'을 위해 현재 종자 150만주를 파종 및 육묘관리 중에 있으며, 이달 중 10개 읍·면에 코스모스 묘목을 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코스모스는 9월 상순 우수·삼계·지사면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청용·운암면, 하순에는 입실읍·성수·관촌·덕치면 순서로 개화될 전망이다.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실=진홍영 기자

입실 증금마을 유랑극단 '최우수상'

전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운동분야에서

'입실치즈마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증금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유랑극단이 전북도가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은 증금리 증금마을의 '내 나이가 어때서' 할머니 유랑극단이 '제3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운동분야' 최우수상(생생마을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할머니 유랑극단은 '입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스테이 분리수거 교육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구성됐으며, 이번 연극은 마을에서 경험한 분리수거 문제를 주민 상호 소통과 공감으로 극복한 실제경험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속마음을

할머니의 일상적인 대화로 풀어냈다.

주민들은 연극팀 구성 후 1년 동안 농사일을 마친 저녁 및 주말 오후 시간을 활용, 전문가의 지도 아래 대본을 외우고 동선을 맞추는 등의 연습과 외부 공연을 통해 자신감과 무대경험을 키워왔으며, 이러한 준비와 주민 단합을 통해 지난 7일 최우수상 수상과 시상금 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오는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 콘테스트에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군은 주민의 자율, 창의력 및 협동심을 고취하고 의욕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 마을 분야별(농촌운동분야, 문화복지, 경관환경)로 참가 신청을 제출 한 바 있다. /입실=진홍영 기자



남원 허브체험관광농원 꽃 만발 관광객 '유혹'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위치한 허브체험관광농원 및 경관농업지구에 갖가지 허브와 꽃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경관농업지구에는 이팝을 만들고 사투비아 2만본, 메리골드 2만본, 안젤로니아 4만본등, 총 8만여본을 줄임기 하여 빨강, 주황, 노랑, 보라 색색별로 아름답게 정렬된 모습이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허브체험관광농원을 거닐며 허브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신경 안정, 불면증 치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우울증 완화와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님이 같다.

유리온실 식물원 내엔 우리 주변에

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품종의 허브를 안내관을 통하여 이름과 활용법, 효능 등을 배우며 감상할 수 있고, 새로 개장한 허브체험카페에서는 시원한 음료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허브를 이용한 비누, 향초, 화장품, 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허브제품들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또한 경관농업지구 도로변에 라벤더를 식재하여 꽃이 피기 시작함에 따라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가올 여름의 보릿밭 향연에 빠지게 할 준비를 마쳤으며 허브밸리 하편 라벤더를 연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식재와 산업화를 꾀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건강장수연구소 맞춤형 당뇨교육 호응속 마쳐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순창 지역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군민 맞춤형 당뇨교육이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지난 8 막을 내렸다.

이번 교육은 만성질환 없는 순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6월 20일 첫 회를 시작으로 8일까지 지역 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형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만성질환 없는 순창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 조치로 지역주민들이 당뇨에 대해 바로 알고 일상에서 스스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손쉬운 관리법 등을 알려줘 만족도가 높았다.

먼저 이번 교육에서는 당뇨와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선대병원 양명자 영양사는 '당뇨인을 위한 당뇨병과 바른식생활'이라는 주제로 당뇨인의 식습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제작한 칼로리가 표시되어 있는 건강밥그릇은 환자 본인에게 맞는 식사량과

식이요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노인 당뇨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이번 교육의 핵심은 주민들이 스스로 당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당뇨센터 이해정 간호사는 '개인별 혈당측정법과 발관리'라는 주제로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가정에서도 본인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대일 혈당측정기 사용법도 진행해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별 맞춤 운동 상담과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도 함께 소개됐다.

연구소는 하반기에는 이번엔 참여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당뇨캠프 등에 프로그램을 진행해 당뇨 없는 순창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황종택 남원경찰서장 취임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11일 오전 11시 각 과·계장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렬한 환호속에 4층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황종택 서장은 "예로부터 지리산의 기운이 가득한 남원의 경찰서장으로 취임하여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주민과 함께 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완벽한 치안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종택 서장은 "첫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찰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으로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용,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분석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11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과·계장, 파출소장 및 성과담당자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분석 및 하반기 중점 추진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여성청소년계 은준원 경사, 수사지원팀 이창근 경사, 남계파출소 이기림 순경이 상반기 치안성과와 우수에 기여한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했다.

보고회는 순창경찰 2016년 상반기 치안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치안성과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활발히 진행, 시민의 체감치안과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주민이 공감 할 수 있는 하반기 치안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상반기 미흡한 부분에 치안역량을 집중, 지역사회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73개소 식중독예방 교육

고창군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나섰다.

군은 11일 지역 내 50인 미만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급식소 73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식중독의 정의, 식품의 구입요령, 종사자 개인위생관리상태, 식품의 취급방법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식중독 예방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진행됐다.

또한 감염병 없는 고창 만들기의 일환으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중 현재 발생률이 높은 A형간염 및 고창군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가을철 쯔쯔가무시병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의 홍보와 식품의 적정보관상태, 조리종사자의 위생적인 식품취급요령 등을 홍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입실군, 여름방학수영교실선착순 모집

입실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여름방학수영 특강교실' 수강생 50여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강교실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매주 화, 목, 금요일 오전과 오후 초급 2개 반으로 운영되며 수영장 안전교육, 수영법, 에티켓 등 이론교육과 물 적응 훈련, 발동작, 숨쉬기, 수영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수영 특강교실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실군민체육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40,000원(강수로 포함)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은 20%감면 받아 34,000원이다. /입실=진홍영 기자